

삼성전자, HBM3E 호황… 3분기 매출 86조원·영업익 12조원

HBM3E·AI 수요가 이끈 반도체 호황…폴더블·프리미엄 제품도 선전하며 전사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지난 10월30일 연결 기준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19% 증가했다.

특히 HBM3E는 엔비디어를 포함한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게 샘플을 출하했다.

가전, 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도 폴더블 신모델 출시 효과와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26조 9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환율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화 강세로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DS부문에서 소폭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DX부문에서 일부 긍정적 영향이 발생해 전사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메모리는 HBM3E 판매 확대와 DDR5(Double Data Rate 5), 서버용 SSD(Solid State Drive) 등의 수요 강세로 사상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시스템온칩(SoC)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시장 전반의 재고 조정과 계절적 수요 둔화로 실적은 정체됐다.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첨단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주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전 분기 대비 개선됐다.

모바일경험(MX)은 갤럭시 Z 폴드7 판매 호조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또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태블릿·웨어러블 신제품 판매 증가로 견조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

영상디스플레이(VD)는 ▲Neo QLED ▲OLED ▲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견조

했으나,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호조와 전장 부문의 매출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디스플레이(SDC)는 중소형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됐다. 대형은 QD-OLED 게이밍 모니터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망으로 일반 메모리 시장에도 수요 폭증이 기대되는 가운데, HBM 판매 확대까지 더해지며 모처럼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동안 사업기회를 잃었던 HBM 사업 역시 본래도에 올랐다. “내년 HBM 비트 생산 계

획은 올해 대비 매우 대폭 확대 수립했으나,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에 HBM 판매 확대가 더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HBM과 일반 메모리 간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산을 고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시설 투자 총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내년은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필요 시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메모리 사업은 적극 투자 기조 하에 전년 대비 상당 수준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전체 투자 중 D램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b, 1c 나노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선단 비트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중장기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 투자도 일부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낸드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후 선단 공정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운드리 역시 내년 고객 확보를 연계한 탄력적 설비투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가동을 준비 중인 테일러 신규 팹(fab) 건설 마무리가 예정돼 있다.

송민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한적십자사 기부 100억 클럽 디지털 현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31일(금) 대한적십자사 본사 1층(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부 100억 클럽 디지털 현판 등재식’에 참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6월 공공기관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니스 기업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8월 기준의 동판을 디지털 현판으

이영진 기자

폴무원, 프리미엄 칼국수 2종 출시…겨울면 시장 본격 공략

냉장면 1위 기술력으로 육수마다 다른 최적의 생면 식감 살려



‘냉장면 No.1’[1] 브랜드 폴무원이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프리미엄 한식 칼국수 2종을 선보이며 겨울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폴무원식품은 진한 국물과 쫄깃한 생면 식감을 살린 ‘생 수타식 닭칼국수’, ‘얼큰버섯칼국수’ 2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냉장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한식 국물요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폴무원은 김치전골우동에 이어 한식 국물면의 대표주자인 칼국수 신제품 2종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겨울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냉장면 1위 브랜드로서 쌓아온 폴무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과 국물에 모두 차별화를 뒀다. 닭 육수와 버섯 육수 등 새로운 국물 베이스를 개발하고, 국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면을 완성했다. 여기에 풍성한 토핑을 추가해 맛과 식감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제품은 ‘생 수타식 닭칼국수’와 ‘얼큰버섯칼국수’ 2종으로,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한식 칼국수의 깊은 맛과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생 수타식 닭칼국수(380g/7,480원)’는 4번 이상 눌러 치대는 수타식 공법으로 집에서 갓 뽑아낸 듯한 쫄깃한 생면 식감을 살린 제품이다. 진하게 우린 닭 육수에 해물로 감칠맛을 극대화하고 보양식처럼 깊고 든든한 국물을 완성했다. 여기에 동결건조 공법으로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닭가슴살과 부드러움을 더한 계란 불륵이 포함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얼큰버섯칼국수(367.8g/7,480원)’는 버섯과 소고기를 진하게 우린 얼큰하고 칼칼한 육수가 특징으로, 동결건조 공법으로 완성한 미나리와 버섯 건더기로 향긋함과 씹는 맛을 더했다. 물 함량을 조절하며 숙성하는 ‘다기수 진공 공법’으로 제면해,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은 유지하고 국물은 잘 배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에 한 차례 증숙 과정을 거쳐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즐길 수 있으며, 면이 금방 풀려 단 90초 만에 전문점 수준의 칼국수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폴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칼국수에서 얼큰한 맛과 깊은 국물을 원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냉장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냉장면 No.1’ 브랜드로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11조3,834억 첫 10조 돌파

HBM4 출하 임박·M15X 조기 가동…내년 투자 확대 예고



SK하이닉스가 지난 10월 29일 실적발표회를 열고, 올해 3분기 매출액 24조 4,489억 원,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영업이익률 47%), 순이익 12조 5,975억 원(순이익률 52%)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에 지난 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 번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I 서버용 수요가

늘며 128GB 이상 고용량 DDR5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낸드에서도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AI 서버용 기업용 SSD(eSSD, enterprise SSD) 비중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전 분기 대비 10조 9천억 원 늘어난 27조 9천억 원에 달했다.

반면 차입금은 24조 1천억 원에 그쳐 회사는 3조 8천억 원의 순현금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AI 서버의 연산 부담을 일반 서버 등 다양한 인프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고성능 DDR5와 eSSD 등 메모리 전환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민수 기자

SH, 시민·엠지(MZ) 직원 함께하는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30일 ‘MZ혁신보드 AI 프롬프트’ 열어

인공지능 활용한 도시·주거 혁신 서비스 개발·시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30일 엠지(MZ)세대 직원과 시민 주주가 협력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MZ 혁신보드 AI 프롬프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롬프트(Prompt)는 시스템 명령 메시지인 프롬프트(Prompt)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제품 혹은 서

비스를 만드는 행사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실험형 프로그램으로, SH 직원과 시민 주주가 함께 도시·주거 분야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첫 시도다.

행사에는 SH ‘MZ혁신보드’ 구성원 32명과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나뉘어 대시민 서비스와 임직원 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제품을 개발·시연했다.

SH는 시민 주주단과 인공지능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창의성, 기술 구현력, 효과성을 기준으로 시제품을 심사했으며, 우수 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직원과 시민이 함께 ‘실행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실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규영 기자

한전KDN, 공공기관 최초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경영 선도

PDCA 관리 체계 구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련법령 이행현황 시스템화 구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 KDN(사장 박상형)이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경영을 선도한다.

한전KDN이 구축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이후 통합관리 시스템)’은 관련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구축한 첫 번째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향후 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내역 ▲안전 점검 이력 ▲위험성 평가 ▲교육

이력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안전점검 이력, 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의 계획에서 실행과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PDCA(Plan-Do-Check-Action) 체계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전KDN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고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공사진행 관리, 상황별 경보발령, 사고현황 모니터링, 사고발생 알람 등 전 과정을 안전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혁신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의 이번 시스템 구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에 대

이영진 기자